2017. 3
Vol. 39

BIZart 비자트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HOT ISSUE
中 비관세장벽 TBT·SPS로 골머리

BIZ REPORT II
6개월 미만 근로 '해고예고제도'

CEO INTERVIEW
"따뜻한 밥 한끼" ㈜텐먼스맘 이소희 대표

주목 이 작가
대화의 즐거움, 지히 작가

슈퍼 컬렉터
앤디 워홀 작품은 호세 머그라비에게 물어봐

지히_ 우리둘이 acrylic on panel 117x91cm 2016

BIZart 비자트

2017.3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Business

03 **HOT ISSUE** - 무역 中 비관세장벽 TBT·SPS로 골머리

06 **BIZ REPORT I** - 법무 동업계약의 유형 이해하기

09 **BIZ REPORT II** - 노무 6개월 미만 근로 '해고예고제도'

12 **CEO INTERVIEW** - 경영 "따뜻한 밥 한끼" ㈜텐먼스맘 이소희 대표

14 **FOCUS** - 공공시장 공공조달시장 진출…다수공급자계약

16 **NEWS BRIEFING** - 경제뉴스 외국산 재료 섞어 만든 '중간재' 관세혜택 받나

Art

17 **주목 이 작가** 대화의 즐거움, 지히 작가

22 **슈퍼 컬렉터** 앤디 워홀 작품은 호세 머그라비에게 물어봐

24 **예술 별*방** 연민과 투쟁, 그리고 상기(想起)의 예술

26 **관념미학 어워드**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28 **한국화 읽기** 조선시대 동물로 투영된 그림 읽기

30 **예술가의 뮤즈** 에두아르 마네와 베르트 모리조

제호 BIZart 비자트
통권 Vol. 39
발행처 ㈜에스엠비넷 ㈜예술만세
발행일 2017. 3 .1

기획 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
경제콘텐츠 손채윤, 박현진, 채민선, 이가영
김성화, 박홍기
아트콘텐츠 김현성, 안진국, 이유미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주소 (137-87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5, 2층 201호
(서초동 고금빌딩)
전화 02)525-7021 ㈜에스엠비넷
02)745-0180 키스갤러리
팩스 02)6499-1391
월간 6,000원
등록 2013. 12. 11(등록번호 서초 라11599)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
중기이코노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中 보호무역…
기술무역장벽, 위생·검역조치로 골머리

CCC 등 인증에 대비하되, 기술 유출·지재권 침해 주의

중국 산시성으로 수출했던 한국산 조미김이 지난해 3월 전량 통관거부돼 반송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조미김은 총 670㎏, 2만달러에 달한다. 중국정부가 한국산 조미김을 문제 삼은 이유는 '세균' 때문이었다. 중국 위생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게 중국 질검총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조미김 100g당 3만CFU(세균 개체수) 이하 제품만을 수입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나치다는 점이다. 통상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을 제외한 일반세균의 경우 100g당 100만CFU가 넘어야 부패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게다가 조미김은 제조과정에서 이미 가열 처리돼 건조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서는 아예 별도의 세균 수 기준이 없다. 해당업계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또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중 FTA 등으로 중국 수출의존도가 커진 가운데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돼 중소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시작으로 촉발된 통상마찰이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역시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中,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내세워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용역 등 교역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최근에는 관세장벽보다는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이 효과적인 교역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각국의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또 현지의 법률과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취해진 중국의 비관세조치는 26개로 전 세계 비관세조치(46개)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2개), 일본(2개)과 비교할 경우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중국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유명하다. 중국은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조치(SPS)를 내세우고 있다. TBT는 무역상대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관세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SPS는 동물과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의 질병원인체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시행하는 수입제재 조치를 뜻한다. 농수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품의 품질보장,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안보이익의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심화, 기술격차 축소,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TBT와 SPS는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2015년 비관세조치를 살펴보면 SPS가 179건(58.9%), TBT가 109건(35.9%)으로 전체의 약 95%에 달한다. 산업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과 전기·전자부문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높다. 2000~2015년까지 산업별 비관세 조치(누적기준)는 농·축·수산물 554건, 전기·전자 440건, 화학제품 355건 순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특히 가공식품의 통관거부가 절반을 넘는다. 2015년 기준 전체 통관거부 품목의 약 57%인 1117건에 이른다. 화장품 등 잡제품도 통관거부가 많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200건과 156건을 기록했다. 2012~2013년 단 한건도 없던 섬유·직물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014년 각 165건과 83건, 2015년 각 207건과 95건을 기록해 증가추세다.

한국은 SPS가 많다. 2000년~2008년 249건이던 SPS는 2009~2015년 88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TBT는 같은 기간 507건에서 681건으로 늘었다. 통관거부 품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 가장 많다. 2013~2015년 누계로 보면 346건이며, 이는 전체 통관거부 건수(499건)의 69.3%다. 통관거부 사유로는 포장 불합격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균 기준치 초과(52건), 라벨 불합격(39건), 유통기간 초과(34건) 등이었다. 이밖에 생활용품, 섬유·직물, 수산물, 잡제품 등도 통관거부가 많은 품목이다.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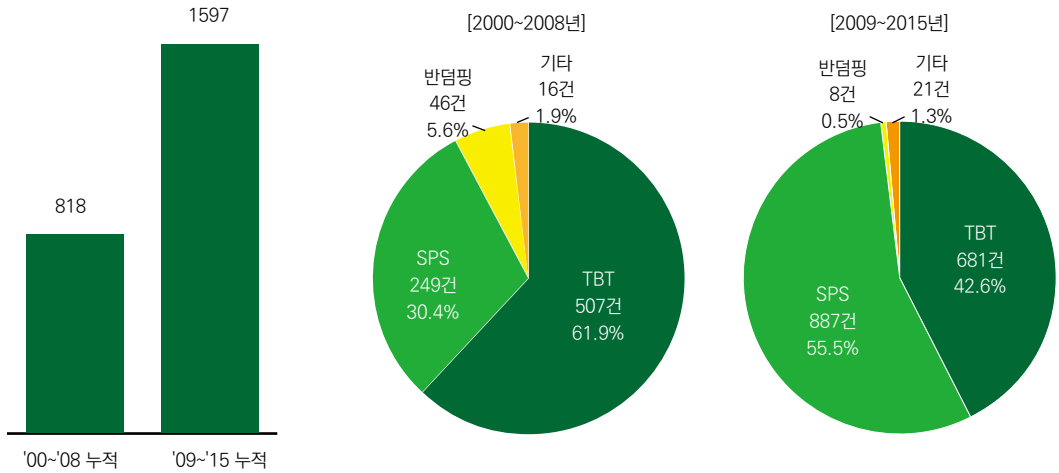
〈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구분	주요 내용
기술무역장벽 (TBT)	■ 강제인증제도(CCC) 중국 내 생산·수입되는 제품 중 CCC인증대상 품목은 CCC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 CCC인증 대상 품목은 2003년 132개에서 2016년(9월) 158개로 확대 → 자동차부품, 완구제품, 전기장치, 통신단말기 등이 강제인증제도 대상 품목
	■ 수입화장품 인허가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검사(2~6개월 소요)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8개월 소요)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
위생 및 검역조치 (SPS)	■ 특정 농수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중국은 수입산 젓갈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엄격,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 어려움 → 김치, 젓갈 등 비조리·발효 식품의 일반세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 보건기능식품 위생 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해, 성분구성이 14가지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위생허가증 발급 → 5년근 이상의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함

중국의 對한국 비관세장벽 현황(누적건수)

〈자료:현대경제연구원〉

*TBT=기술무역장벽, SPS=위생 및 검역조치



비관세 '장벽' 높은 中企,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15년 23.6%로 높아졌다.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對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경우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규제가 복잡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가 잦아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수출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다. 대표적인 TBT로, 국제적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중국에 수출하고 판매하려면 별도로 CCC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대상이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수입제품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CCC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CCC 인증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수출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과다한 비용과 시간도 문제다. 기본신청비와 시험비, 시험관리비, 마크구입비 등을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넘는데다,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6개월~1년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인허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려 제품출시가 늦어지고, 그 사이 국내기업을 벤치마킹한 중국기업이 추격해 와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고기, 우유, 이동통신제품, 자동차제품 등 45개 분야 537개 품목에 한해 발급하는 수입허가증도 골칫거리다. 수입허가증을 받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린다. 규정이 바뀌는 것도 다반사다. 앞서 위생증명서를 받는 것도 만만찮다. 유통기한이 14일인 우유의 위생증명서를 받는데 5일이 걸리고, 유통기한이 5개월인 라면의 경우 위생증명서를 받아 소매점까지 배송되는 데만 두달 반이 걸리기도 한다. 이와함께 제품 특성상 세균이 포함돼 있지만,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김치, 막걸리, 젓갈 등) 등에 대한 세균검사 기준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선 이렇다 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과 기준에 맞춰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인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제품인증 과정에서 기술·기밀유출과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련 법제도를 미리 검토해 수입규제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비관세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수출입 전문가를 통해 FTA 이행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BIZart

글.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kohyg75@hanmail.net

자본·노무 출자 '동업' 사업체 수만큼 형태도 많다

동업계약의 유형…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회사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편의점부터 프랜차이즈, 문구점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 관련 질문이 쏟아진다. 은퇴자들에게 창업은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이어 많이 하는 질문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다. 질문을 받으면서 좀 놀랐던 것은 은퇴하기 전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작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그 중 프랜차이즈 식당이 많았다. 아무래도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다 보니, 은퇴 전부터 남은 인생을 대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혼자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좀 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항상 '동업계약서'라는 주제를 넣는다. 내용은 간단하다. 일단 '동업계약서를 쓰자'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동업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두약속도 유효하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구두약속조차도 명확하게 주고받은 것이 없다.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다.

동업계약의 유형은 크게 민법상의 조합계약,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과 합자조합계약, 합명회사·합자회사, 주식회사로 나눈다.

◇ 민법상의 조합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업자 모두가 자본이나 노무를 출자하는 가장 원칙적인 동업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동업계약이 있다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문제는 민법 제703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민법 제704조), 조합원이 모두 출자를 해야 하는 만큼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정하고(민법 제711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민법 제710조).

◇ 상법상의 익명조합

상법은 제78조에서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조합(匿名組合)은 한자 그대로 출자자(익명조합원)의 이름이 숨겨진 조합이다. 이 조합은 실제로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 형태이지만, 익명조합원은 뒤에 숨어 있어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다(상법 제80조). 그래서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며(상법 제79조), 영업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영업으로서 활동한다.

쉽게 설명하면, A가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자 하는 B에게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B는 수익이 생기면 A에게 나눠 주기로 한 형태다. 그런데 A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B가 단독운영자이며 투자금의 소유자다.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액을, 또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때는 손실을 공제하고 반환한다(상법 제85조).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따르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문제는 상법 제79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 2는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자조합이라는 제도는 2011년도에 상법에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다. 익명조합과 다른 점은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가 있고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합유)가 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특히 이 합자조합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형적인 형태의 합자조합은 많지 않다.

◇ 상법상 회사

가. 합명회사(合名會社)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다. 전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고(상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결합이 강한' 형태의 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합명회사는 출자자의 책임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출자한 사원끼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마치 동업이나 개인사업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데, 주로 소규모 친족회사 등에 많다.

나. 합자회사(合資會社)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가 섞여 있는 형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역할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맡는 식으로 분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주주가 마음대로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어도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276조).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 투자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즉 '우리끼리만 하자'라는 인적 폐쇄성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회사 형태다.

다.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에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회사다.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 형태 정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회사 형태가 실제 사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 아직은 물음표다.

라. 유한회사(有限會社)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출자자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회사다. 출자한 사원과 법인의 기관이 분리되므로 대규모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운영하는 데 유리한 형태다.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라면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며,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사업, 예를 들어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두는 변호사들의 집단인 법무법인이나, 애초에 설립자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에 적합하다. 특히 외국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만들 경우 유한회사의 형태를 많이 선택한다. 초기 자본이 충분한 외국 대기업으로서는 굳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보다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 주식회사(株式會社)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 중에서 법인격 독립의 원칙(회사가 개인과 독립된 인격을 가진다는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형태의 회사다. 즉 출자자는 더 이상 '사원'이라 불리지 않고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되며, 소유와 경영은 완전히 분리돼 '이사'라는 지위를 갖는 자가 경영을 맡는다.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회사나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 등락하게 되고, 주식회사는 스스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새로이 자본을 모집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는 이렇게 자본의 모집이 쉽다는 점과 회사가 대형화돼도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인해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BIZart

글.
노동OK **김성호** 상담실장
seekhoper@gmail.com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 '해고예고제' 적용

헌재 위헌결정 후 대법원 첫 판결…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 사건개요 및 대법원 판결

2009년 영어강사로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된 A씨는 학원장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A씨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한 근기법 제35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위헌이라며, 2014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청구를 심리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위헌결정 이후 지난해 2월 A씨는 대법원에 학원장을 상대로 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기법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심을 깨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2016재다224).

◇ 해고예고제도

근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법에 해고예고제도를 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가 됐을 때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즉시에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 또 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법정기간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기법 제35조(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따라 해고예고없이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

◇ 헌재의 결정(2015.12.23. 선고, 2014헌바3 결정)

헌재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갑작스런 실직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을 막는다는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심판대상조항은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의 근로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근로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헌재는 위헌결정 이유를 통해 헌재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재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설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즉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의 법적성격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법률로 제한한 규정은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근기법 제35조와 동법 제26조 단서다. 근기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이유를 통해 헌재는 근기법 제35조와 동법 제26조 단서 규정 등 '법률적 제한' 이외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헌재가 밝힌 기준은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이다.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에게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인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를 포함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기본권안 '1월의 통상임금 또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에 헌재는 "이들(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 해고예고제도와 관련한 쟁점

해고예고는 해고를 전제한 사용자의 일방적 처분이므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예컨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도래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해고에 해당해 해고예고대상이 될 수 있다.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통보해야 하지만, 해고예고의 통보방식은 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의미하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346, 2003.10.20.).

근기법 제35조 이외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해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등 9가지의 근로자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한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39429 판결).

최근에 좀 덜하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고예고와 해고사유가 정당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다.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위헌 결정이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해고예고없이 즉시해고를 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미혼모 한부모 고령자… 취약계층 아픔 요리로 보듬다

"할 수 있는 일은 요리 뿐이라서 음식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만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먹는다면, 이 사회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텐먼스맘은 '음식으로 사회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미혼모, 유산을 경험한 여성, 소외된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요리강연을 하고 요리과정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 자격증 반을 통해 요리사로 양성해 취업을 돕기도 한다. 이와함께 케이터링 도시락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미혼모,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고령자, 환자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이 요리를 매개로 치유를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텐먼스맘의 이소희 대표는 "음식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천지차이"라며 "먹는 순서를 바꾸거나, 요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1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다"며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재주가 이 사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쓰임'이 된다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이소희 대표.〈사진:중기이코노미〉

"따뜻한 밥 한끼 나누는 사회" ㈜텐먼스맘 이소희 대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요리로 감동 주는 것"

한 때 잘 나가는 교육사업을 운영하며, 남부러워 하는 차도 타고 번듯한 집도 장만했던 이 대표는 어느 날 심각한 질병을 발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안 좋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대표는 사업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갈 마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해보지 못한 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요리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배낭여행을 떠나는 일이었죠."

한국을 떠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자격증 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격증이 생긴 후 이 대표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배낭여행부터 떠났다.

"배낭을 메고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 각국 등 정처없이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리가 바꾼 삶…소아암 환자 '쉐프' 꿈 도와줘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요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유치원부터 양로원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요리강연을 했다. 강연을 통해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과 인연이 닿은 이 대표는 집에서 2시간 거리의 시설을 오가며 자원봉사를 했다. 이혼을 경험하고 어린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아픔을 겪었던 이 대표였기에 미혼모의 아픔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자원봉사의 형태로 그들을 돕는 것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선택한 비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창업을 결심하게 됐죠."

한 기업체에 적을 두고 강연을 다니던 이 대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며 텐먼스맘을 설립한다. 미혼모들이 요리로 치유의 시간을 갖고, 기능인으로 요리를 익혀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텐먼스맘의 직원들 또한 이 대표의 요리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은 미혼모와 시니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부모 가족 혹은 비혼모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들 스스로도 당당하게 사회일원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도 없다보니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미혼모 뿐만이 아니다. 암환자 식생활 개선프로그램, 장애인 재활요리교육, 복지관 집밥요리 교육, 백혈병·소아암 쿠킹클래스, 보호관찰청소년 직업훈련교육, 저소득 독거노인 쿠킹클래스 등 취약계층을 돕는 요리치유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소아암환자협회에서 요리봉사를 하다가 알게 된 한 여학생은 '쉐프'가 꿈이었다. 어렵게 요리학교에 들어갔지만, 어린시절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 자격증 공부가 쉽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일주일에 한번 자격증 공부를 도와줬다. 열이 나면 공부하러 못 오기도 하고 체력이 약해 많이 걱정했는데, 얼마전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2 시니어대상 바른식생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텐먼스맘 〈사진=텐먼스맘〉(위)

3 바른식생활 어린이 요리교실 〈사진=텐먼스맘〉(중간)

4 이소희 대표는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기 있는 밥 한끼 지어주고 싶어 '곳간'을 차렸다. 〈사진:중기이코노미〉(아래)

텐먼스맘 교육생이 일하고, 밥 한끼 나누는 '곳간'

텐먼스맘은 지난해 10월 서울혁신파크 내에 '곳간'이라는 분식점도 열었다. 분식점이라는 업종 때문에 라면과 떡볶이를 구색으로 갖추고 있지만, 매일 메뉴를 달리 해 '집밥'을 제공하는 식당이다. 텐먼스맘의 요리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이 곳간의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울혁신파크는 사회변혁가들의 둥지죠. 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기있는 밥 한끼 지어주고 싶어 이곳에 식당을 차렸다"고 했다.

곳간은 좋은 재료만 사용하고 판매량이 많지 않아 늘 적자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곳간과 같은 음식점을 더 많이 열고 싶어한다. 텐먼스맘의 요리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나눠먹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힘든 일도 많았겠죠. 하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곳간의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재주가 이 사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쓰임'이 된다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BIZart

5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내 카페테리아 '곳간' 〈사진:중기이코노미〉

글.
중기이코노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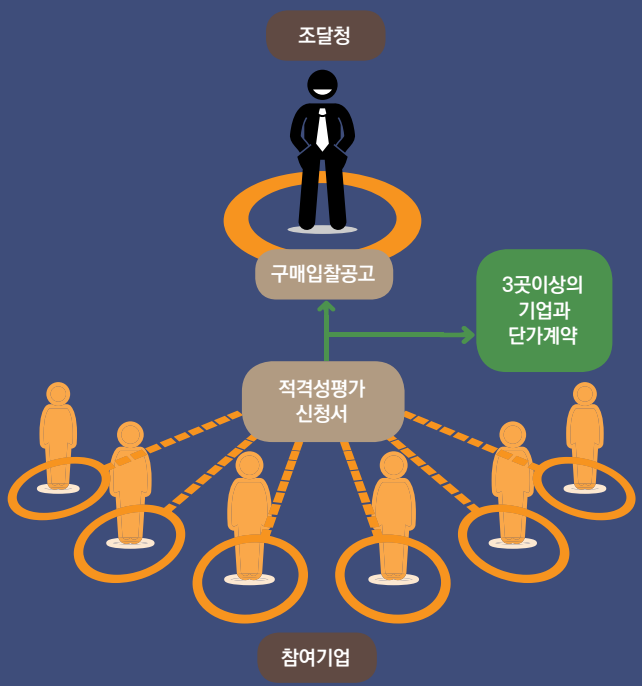
공공조달시장 진출…'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청, 3곳이상 기업과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서 판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는 조달청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인 최저가 낙찰제도가 품질과 제품의 다양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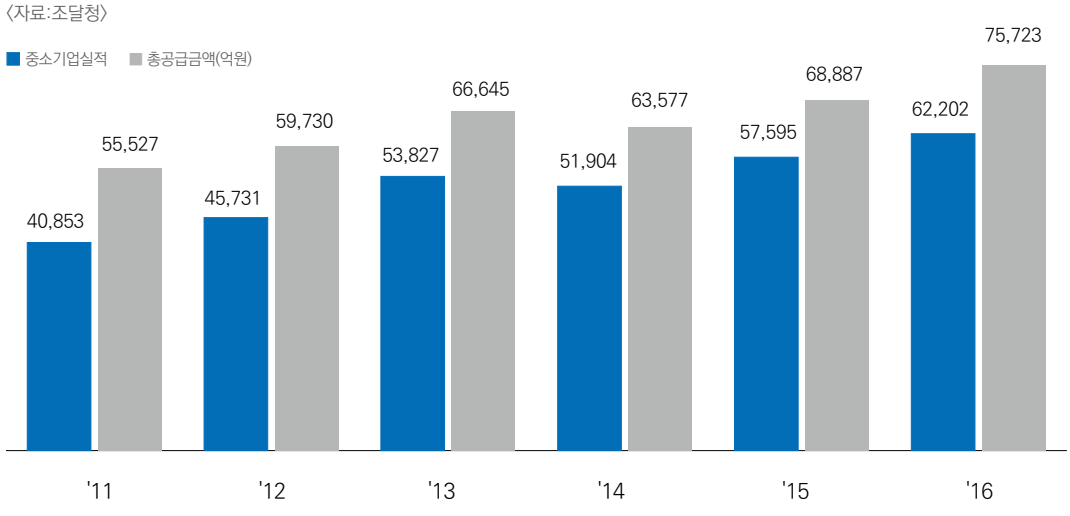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있으면, 담당자가 구매계획을 세워 조달청에 알린다. 그러면 조달청은 이를 검토해 나라장터에 구매입찰 공고를 올린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격, 인도조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적격성 평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적격성 평가는 기업의 실제 조달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공고의 참가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면 신청할 수 없다. 창업 2년 이내의 초기기업은 신용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MAS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강의를 수강한 후 60점 이상 받아야 적격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운영 현황

〈자료: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자료:조달청〉

▲인조잔디 ▲태양광발전장치 ▲공기살균기 가드레일 ▲정수기 ▲도로중앙분리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8개 품목은 적격성 평가가 아닌 별도의 사전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물품에는 물품식별번호가 주어진다. 이후 기업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품목의 규격서와 실적자료를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한다. 규격서에는 공급물품의 규격(모델), 용도, 원산지, 최저 납품요구 하한량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성능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에 미달된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어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2개월간(최소) 가격증빙자료와 함께 희망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가격증빙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적절한 가격을 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기업이 제출한 가격증빙자료와 자체가격조사를 통해 협상기준가격을 제시한다. 이때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협상가격의 상·하한선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혹은 정해진 장소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된 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다. 가격협상을 할 때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할인율은 2단계 이상 제시해야 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수정할 수 있다. 많은 수량을 한번에 구매하면 금액을 할인해주는 다량납품 할인율은 직전 할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어, 처음 할인율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고 특허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창업 2년 초과 5년 이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2건 미만이다.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차량이나 냉난방기기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운반비 및 설치비 등을 추가한 옵션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해야 계약이 최종 체결된다.

단 수요기관의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납품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경쟁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대기업 제품은 5000만원,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가방식 등이 까다롭다.

MAS는 품목당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이상인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가격측정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 최고우대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업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차후 민간 판매로 확대할 수 있다. 기술력을 갖춘 정부조달우수제품이나 친환경제품 등 신기술 업체는 MAS 우선 계약 및 쇼핑몰내 전용숍 운영 등의 혜택도 있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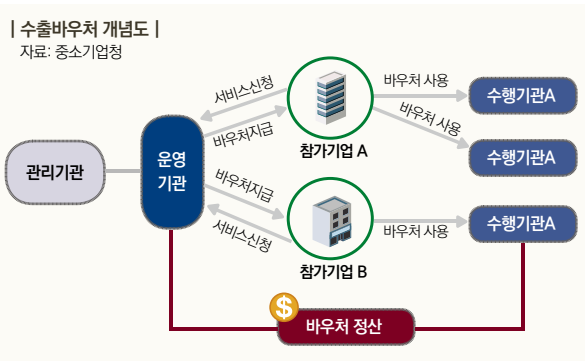
외국산 재료 섞어 만든 '중간재' 관세혜택 받나

한·아세안 FTA에서도 '중간재 규정'을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문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FTA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중간재 규정이란 역외산 재료가 포함되더라도 완성된 중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으로 판정되면, 중간재 가격을 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반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 中企, 최대 2억 수출바우처 이용하려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를 원할 때, 각 부처·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일일이 확인해 사업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올해부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수출바우처'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수출바우처 제도는 바우처(voucher, 온라인쿠폰)를 지급받은 기업이 유관기관과 민간이 제공하는 수출지원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 수출바우처 개념도 |
자료: 중소기업청



분식회계 부당해고 위장폐업…재도전지원 안된다

정부의 재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하는 기업이라면, 재창업 전에 운영하던 기업의 경영방식에 법적·도덕적 결함이 없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재창업 지원 전 '성실경영평가'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성실경영평가란 재창업 전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운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 출연·보조·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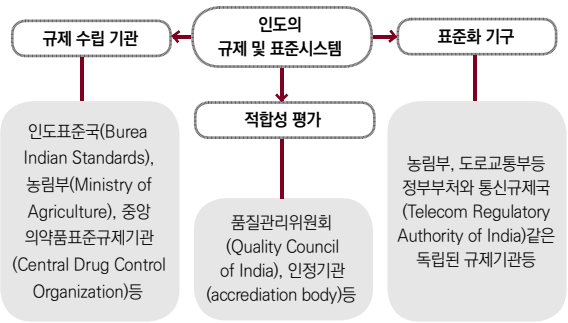
'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 건설업의 경우,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산·납부한다.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징수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기술장벽·위생규정 내세워 자국산업 육성 인도

인도가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양상도 달라졌다. 과거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를 넘어, 신규 인증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다양한 보호무역조치를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규정(SPS) 등이다.

| 인도의 TBT와 SPS조직 및 제도 | 자료: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집



안경 만드는 업체 없고 안경사 부족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왜 안경이 비쌀까? 안경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소매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고 유통하는 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아프리카는 안경사가 태부족이다.

우리 회사 '정보화' 경영환경 문제는 없을까

정보화경영체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중소기업의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경영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공공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인증과 사후관리 등 관련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IMS인증을 획득하면, 기업 스스로가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정보화 능력과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업무상횡령·폭행죄 벌금…그래도 해고는 안돼

업무상횡령 및 폭행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해고처분과 동일한 '당연퇴직' 사유, 즉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핵심인력 전직금지 기간 어느 정도가 합당할까

회사의 핵심인력을 경쟁사에서 스카우트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이 때 필요한 것이 전직금지 약정이다. 법원은 금지기간을 영업비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정보에 따라 전직금지 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키스갤러리 **이유미** 아트컨설턴트
kissgallery@naver.com

1 _____ 연인들 117x91cm oil pastel on panel 2016

대화의 즐거움

지히 작가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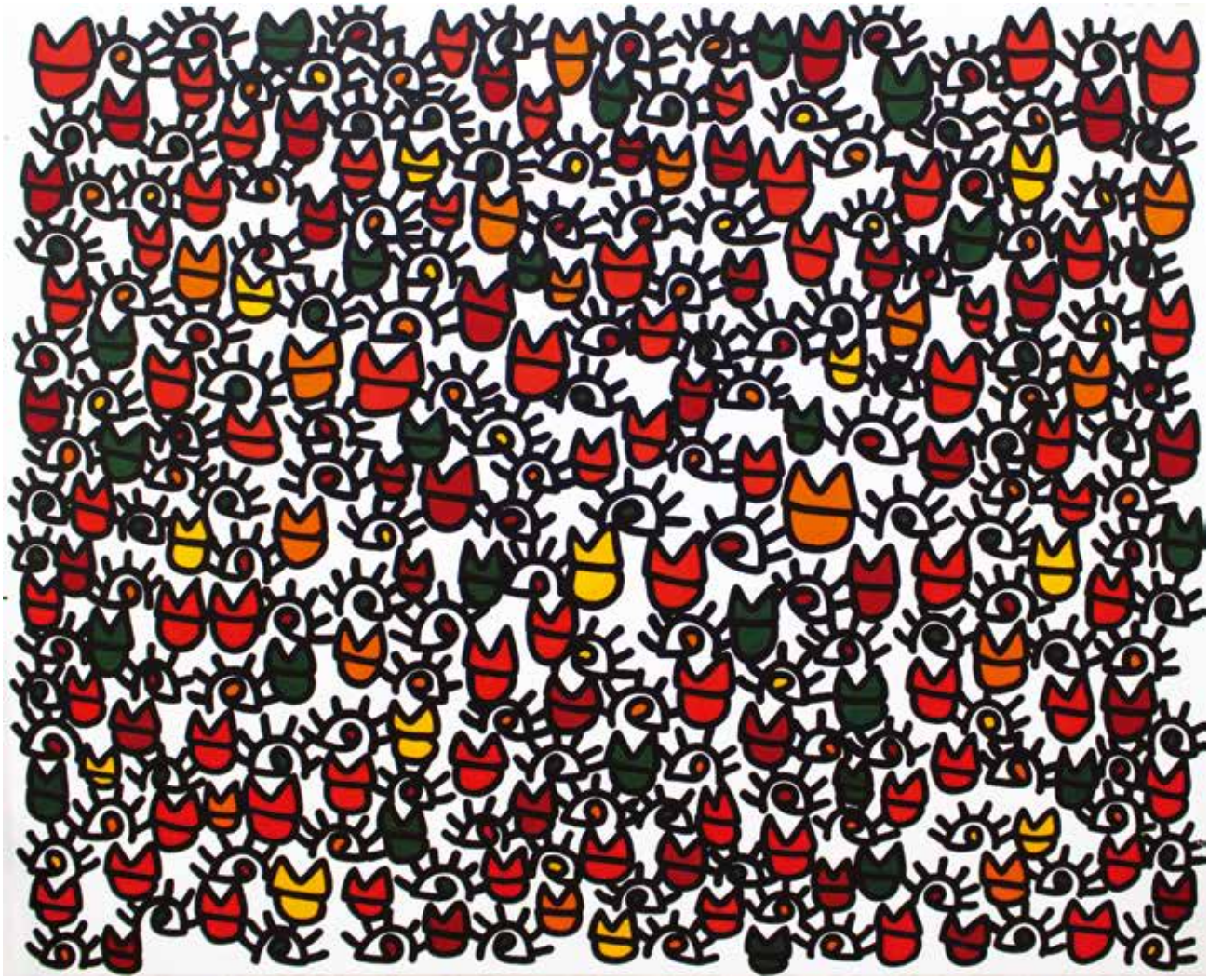
디지털 대화 덕분에 만나서 소요되는 시간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점차 고립되고 있고, 직접 마주앉아 대화하는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 주는 인간적 아름다움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스쳐지나가 쉽게 잊히곤 했던 대화의 온기를 기억하고 그 중요성을 알며 또 다른 대화로 확장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작가노트 중)

2 Play44 40.9x31.8cm oilpastel on panel 2017

3 꿈꾸는행복 117x91cm oilpastel on panel 2017

4 가족 117x91cm oilpastel on panel 2016

4



5_____사람들 162x130cm acrylic on panel 2016

지히 작가는 작품에서 메타언어를 주요 소재로 조형 언어화 하고 있다. 언어 학자가 언어의 구성 요소를 분절하여 정의하듯, 그는 대화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메타언어적 요소들 – 눈, 입술, 눈동자, 말 등과 같은 행위들을 분절하고 기호화 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 수학, 음악 등 다양한 일반적 기호들과 매치시켜 대화 발생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 상황은 대화 나누기 대화 혹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들로 이어져 나가는 대화와 같이 어찌보면 대화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관계와 같은 심리적 탐구를 그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대화 기호들의 배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역시 2차적 상상력을 유발하며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재미를 안겨준다.

인간과 기계 문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메타언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예술은 이를 표현하기에 서정적이고 함축적인 도구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앙리 르페브르가 언급했듯 도시를 이루는 리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음계인 것이다. 지히의 작업은 오늘날 점차 사라져가는 인간애에 대한 마음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과 기계문명 사이의 간극이 가져오는 현대성의 일면을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업들로 하여금 그 간극이 좁아지길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의도를 담은 조형 언어들의 이야기만큼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울림들이 지속되길 바란다. (김태현 미술평론가 / 작품론 중 발췌)

6 거짓말쟁이들 73x91cm oilpastel on panel 2016

조형이란 결국 형식미와 미적 태도의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경우 언어는 비교적 공고해진다. 그렇다고 그 결과물이 반드시 공감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거개의 예술이 그러하듯 공감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수용보다 마음이 앞설 때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것은 지각에 우선하며, 거추장스러운 내레이션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히 작가의 작업은 어떤 면에서 익숙한 대화를 재생산함으로써 언어 뒷면에 감춰진 느낌과 감정을 파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전달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연장이고, 고립된 채 발견되지 못한 것의 발견을 통해 삶의 지층을 덮고 있는 다양한 생각거리에 대한 시도다.

그의 그림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적 대화를 통한 감정의 진득한 교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진득한 교류라는 부분이고, 그것의 참다움은 실제적인 것과 '행간'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진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 '대화와 감정의 함수, 이미지 뒤에 감춰진 행간 읽기' 평론 중 발췌) BIZart

7 개인전 전시전경, 갤러리탐, 탐앤탐스 블랙 청담점(위)

8 2016 블랑블루 전시전경, 그랜드앰베서더 호텔(아래)

지히 JIHI

개인전 solo exhibition
2016 'DIALOGUE' 갤러리 탐, 탐앤탐스 블랙 청담점
2016 'DIALOGUE'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16 'LOVE ESSAY' cafe MIEL, 서울
2015 '사랑을 말하다' 백희갤러리, 전주
2014 'love essay' 화봉갤러리, 서울

단체전 group exhibition
2016 '블랑블루' 그랜드앰베서더 호텔, 서울
2016 'RED', 마롱갤러리, 서울
2016 '판매전',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16 '부산디자인페스티벌', 갤러리메이, 부산
2016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2016 '뜻밖의 발견, serendipity', 키스갤러리, 서울
2016 '동시대적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알레고리', 리각미술관, 천안
2016 young monochrome 'BLACK' 갤러리 메이, 서울
2015 '모모프로젝트', 갤러리 일호, 서울
2015 2015 '아트캔버스 프로젝트', 서울
2015 2015 '아트캔버스 프로젝트', 독일
2015 '베이징을 말하다' 청작화랑, 서울
2014 '서울아트쇼' 블루인아트, 서울
2014 '행복한 선물' 전, 롯데백화점 잠실점, 서울
2014 'CIGE 북경아트페어', 중국 국제 컨벤션센터, 베이징
2014 '이음-이어지다' 이음아트스페이스, 울산
2014 '새로운 도약전 2014' 공모선정작가, 청작화랑, 서울
2014 개관전 'love' 지포라이터 뮤지엄, 제주
2014 '신년기획전', 가이아갤러리, 서울
2014 '청색시대전', aka갤러리, 서울

협업작업 collaboration
2017 여성복 지컷 g-cut 17s/s 협업작업 (예정)
2016 MISSHA '미샤x지히', 10월 고객상품 에코백 제작
2016 아브라함케이한글, 여름, 겨울 시즌 협업의상 제작
2016 KEAS, 블루투스 스피커 아트 프로젝트 vol1.
2015.12.5 재즈가수 이현정2집 앨범 발매 기념공연, 앨범 수록된 페인팅작업 및 전시

9 개인전 전시전경, 갤러리탐, 탐앤탐스 블랙 청담점

글.
김현성 아트브런치 대표
artmanse21@naver.com

1___ 호세 머그라비(출처 artobserved.com)

앤디 워홀 작품은 호세 머그라비에게 물어봐

슈퍼컬렉터들은 매년 봄에 열리는 홍콩 아트바젤을 시작으로 스위스 아트바젤,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술품 경매 시장을 누비고 다닌다. 만약 엄숙함과 긴장감을 자아내는 뉴욕의 소더비 이브닝 경매장 한쪽에서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심지어 야구모자까지 쓴 채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는 슈퍼컬렉터 호세 머그라비(Jose Mugrabi)다.

앤디 워홀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유한 호세 머그라비는 인상파 작품을 구매하면서 컬렉터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식료품점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평범한 시리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6세 되던 해 삼촌과 함께 콜롬비아로 가 섬유유통업체의 심부름 소년 역할을 했다.

그는 직물 관련 대학에 다니지 않았지만 사업 수완이 있어 수천 야드의 천을 사고파는 일을 혼자 처리하기도 했다. 사업이 번창하자 경쟁 섬유업체들이 호세 머그라비가 직물세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밀수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했으나 콜롬비아는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섬유밀수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호세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섬유 산업에 지친 호세는 하향길을 걷던 직물사업을 접고 1982년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건너와 자수 의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해 다시 한 번 거대한 재산을 축적한다.

예술은 나의 피난처

뉴욕으로 이주한 호세는 자신의 인생을 미술에 바치게 만드는 미술상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를 만난다. 씨티은행에서 아트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던 제프리는 호세에게 르느아르 작품은 물론 시슬리, 피사로와 같은 인상주의 작가 작품을 매입하도록 한 사람이다.

그렇게 수집가의 길에 접어선 호세는 본능적으로 현대미술작품에 더 이끌렸다.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경매장에서 보자마자 마음을 온통 빼앗긴 그는 결국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270만 달러에 낙찰을 받기도 했다.

그 이후 호세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회화에 반해 그의 작품 800여점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워홀 소장가로 등극했다. 파크 애비뉴(Park Avenue)의 뉴욕 은행 건물에 5개의 방이 있는 그의 사무실은 자주색 현대식 소파와 갈색 책장 그리고 약간의 펜과 전화가 있는 소박한 풍경이다. 하지만 그곳은 리바이스(Levi's)가 발표한 앤디 워홀 청바지의 새로운 라인을 위한 사진 촬영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미국에서 앤디 워홀과 통하려면 그의 방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앤디 워홀은 1952년부터 1987년까지 약 8000점의 그림과 조각품을 제작했으며, 경매가만 110억 달러를 넘는 미술시장의 블루칩이다. 그렇다고 호세의 워홀 작품 수집에 대해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라이벌 컬렉터들은 호세가 작품거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작품의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때론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그의 태도들이 다른 컬렉터들의 예술작품 수집을 훨씬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세는 작가의 가격 수준을 방어하려는 합법적인 노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호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최근 피츠버그의 앤디워홀 재단이 워홀의 많은 작품들을 크리스티 경매에 넘김으로써 호세 머그라비의 컬렉션 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2 Andy Warhol, Nine Jackies, 1964
(출처 collection.whitney.org)

3 앤디워홀 작품(위)

4 머그라비 패밀리(좌 첫째 Alberto, 가운데 둘째 David 우 Jose) (아래)

컬렉션 프로듀서 알베르토 머그라비

호세 머그라비는 그의 아내인 메리와 함께 맨해튼에 산다. 그의 아이들 중 한 명인 알베르토 머그라비(Alberto Mugrabi)는 아버지의 컬렉션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 알베르토는 억만 장자 투자자인 존 제이 조단의 딸 콜비 조던(Colby Jordan)과 결혼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경매현장을 다녔던 알베르토는 더 자극적이고 독특한 젊은 현대미술 작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데이안 허스트가 대표적인데 그의 작품들에서 신성함마저 느낀다며 수억원의 제작비를 직접 지원하고 작품을 매입하는 컬렉션 프로듀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본능이 돋보이는 컬렉터에 속한다. 현대미술 컬렉션만큼 훌륭한 투자는 없다고 단언하며 좋은 작품을 사기만 하면 예술작품은 한계를 두지 않고 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머그라비 패밀리는 자신들의 컬렉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잠재력 있는 작가에게 작품을 주문제작하기도 하며, 시장에 나오는 작품 수급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한편 미술품 수집을 투자에 차원에서 접근하는 호세 머그라비는 결코 예술가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의 한 식당에서 앤디워홀을 발견했지만 그는 정작 워홀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술에 대해선 문외한이었다. 미술사에 대한 지식보다는 자신의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선택에 의존해 성공적인 컬렉션을 이루었던 것이다. 미술작품을 대하는 컬렉터의 태도와 성향에 대해 호불호가 나뉘기도 하지만 그들이 미술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임에는 분명하다. BIZart

글.
안진국
미술평론가, 종합인문주의 정치비평지 『말과활』 편집위원
critic.levahn@gmail.com

연민과 투쟁, 그리고 상기(想起)의 예술

내가 한 마리 새라면
목이 쉬도록 노래 불러야 하리.
폭풍우 몰아친 이 땅,
영원히 솟구치는 비분의 우리 이 강물,
쉬지 않고 불어대는 격노한 이 바람,
그리고 그 숲새에서 온
비할 데 없이 온유한 새벽…
—그 후에 나는 죽어서,
깃털까지도 땅속에서 썩으리라.

왜 나의 눈엔 늘 눈물이 고이는가?
나는 이 땅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

– 아이칭(艾青),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 전문,
시집 『투명한 밤』

1 아이 웨이웨이,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기둥을 뒤덮은 난민들의 구명조끼, 2016

시인의 아들

여기,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의 다섯 개 기둥에 중동 난민들이 사용했던 1만 4천여 개의 구명조끼가 묶여있다. 그가 기획한 프로젝트다. 기아와 분쟁, 불평등,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 난민은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버렸다. 영국이 지난해(2016년)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주요 이유도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거듭 발생하는 테러 때문에 난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급기야 난민을 "독(毒)"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 지금, 난민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 몇 해 전 시리아 내전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던 세 살배기 알란 쿠르디가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 전 세계가 함께 울었지만, 이젠 그 기억조차 희미해진 듯하다. 그 때문일 것이다. 그가 그 많은 구명조끼를 그 높고 굵은 다섯 개의 기둥에 매단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그의 눈엔 늘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다. 그 시인처럼. 그는 늘 한 마리 새처럼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는 것 같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어낸다. 그 시인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쓰촨성 지진(2008년 5월 12일)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여 그것을 예술로 펼쳤고, 자신의 SNS(블로그, 트위터)로 자유, 거짓말, 기억 등을 주제로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하였다. 그리고 이제 난민이 사용한 구명조끼로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중동의 난민들의 피해를 예술로 상기시킨다. 우울하고 침울한 기조로 민중을 사랑하는 시를 지었던 그의 아버지의 기질을 그는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그를 '새 둥지(鳥巢, 냐오차오)'라는 별칭을 가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을 설계한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는 반체제 예술가로 불리며 무책임한 현실 너머의 또 다른 현실을 늘 꿈꾸고 행동하는 실천가다. 그는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지 않고 현실을 창출한다. 그가 바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1957~)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시인 아이칭(艾青, 1910~1996)이다.

그의 아버지 아이칭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을 만큼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시인이다. 서두에 쓰인 시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는 그의 시집 『투명한 밤』에 수록된 시로, 『투명한 밤』은 중국현대시의 금자탑이라 불릴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칭이 젊은 시절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미술을 배워와 중국에서 활동했던 미술가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좌익예술가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길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시인으로 변신했다. 옥중에서 창작한 그의 시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출옥 후 사회비판적 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아이칭은 중국 문화혁명 중 고발을 당해 18년간 중국 서부의 신장성 고비사막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유배기간에도 강직한 그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

이 시인의 아들이 바로 세계적인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이다. 아이 웨이웨이에게는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진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같은 그의 예술적 열정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 비판적 모습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품는 인간애가 아버지를 고스란히 닮았다. 그의 작업에는 시인의 땀 내음이 배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영국 미술전문지 '아트리뷰'는 2011년 '미술계 파워 100인' 중 1위로 아이 웨이웨이를 뽑았다. artsy.com은 2015년 12월 '영향력이 큰 생존 예술가 10인' 중 첫 번째에 그를 올랐다.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이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척박했다. 아버지의 유배로 중국 북동부 고비사막 부근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시인인 아버지는 날마다 화장실 청소라는 비천한 일을 해야 했고, 그는 학교도, 책도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후 아버지가 복권되어 가족이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는 난생처음으로 미술서적을 접했다. 그 당시가 베이징의 전위파들과 어울려 다녔던 시기다. 하지만 미술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있자,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했다. 아이 웨이웨이를 처음으로 각인시킨 작업은 중국의 오래된 도자기들을 이용한 작업이다. 그는 고가의 유물을 형형색색 칠하거나(〈채색된 도관(Colored Vases)〉, 2006), 코카콜라 로고를 그려 넣었다(〈코카콜라상표(Han Dynasty Urn with Coca-Cola Logo)〉, 1994). 중국의 전통문화와 서구의 대중문화를 섞어 본래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부정한 것이다. 특히 주목받았던 작업은 기원전 200년대의 한나라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도자기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과정을 담은 3장의 흑백사진(〈실수, 한나라 왕조 도자기 떨어뜨리기(失手, Dropping a Han Dynasty Urn)〉, 1995)이었다. 이 사진은 이후 그의 유명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 아이칭과 같은 사회 비판적 성향에 있다. 아이 웨이웨이가 반체제 예술가로 불리는 것은 중국의 인권문제, 사회·문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설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 초청받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사회 비판적 성향과 인간애가 돋보이는 활동은 쓰촨성 지진 희생자를 추적하는 작업이다. 중국 정부는 쓰촨성 지진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 웨이웨이는 직접 여러 사람과 조사팀을 꾸려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 성별, 생일 등의 리스트를 완성하고 그것을 〈쓰촨 명단(Sichuan Name List)〉(2008-2011)이란 작품으로 전시했다. 전시 기간 내내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음성으로 울려 퍼졌다.

2

3

4

5

2 아이 웨이웨이, 〈채색된 도관〉, 2006, 51기의 신석기시대 항아리에 일본제 주택용 페인트
3 아이 웨이웨이, 〈실수, 한나라 왕조 도자기 떨어뜨리기(失手)〉, 1995, C-print, 각각 150 ×166 cm
4 아이 웨이웨이, 세 살배기 알란 쿠르디의 죽음을 추모하는 패러디 사진, 2016
5 아이 웨이웨이, 〈F.Lotus〉, 2016, 구명조끼, 비엔나 벨베데르 궁전 연못

근래에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을 넘어 세계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바로 난민 문제이다. 세 살배기 알란 쿠르디의 죽음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그는 작년(2016년) 1월 30일 쿠르디를 추모하는 행위예술을 펼쳤고, 아이의 죽음을 그대로 따라한 사진을 남겼다. 이어서 2월 14일에는 난민들이 착용했던 1만 4천여 개의 구명조끼로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의 거대한 기둥을 감쌌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난민들이 착용했던 구명조끼를 5개씩 모아 하나로 연결하여 연꽃 모양을 만들고, 그 연꽃 모양 201개를 연결하여 알파벳 'F'형상으로 만든 설치작품을 비엔나 벨베데르 궁전 연못에 띄웠다(〈F.Lotus〉, 2016). 그가 기둥을 감싼 구명조끼도, 연못에 띄운 구명조끼도 모두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난민의 주요 경유지로 알려진 레스보스 섬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구명조끼에는 서글픈 난민의 현실이 스며있다.

아이 웨이웨이는 인류애를 상기시키기 위해 구명조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명조끼는 '세월호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어린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는 선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며 찍었던 스마트폰 영상들이 머리 위에서 맴돈다. 하루빨리 세월호가 인양되고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세월호 사건이 아닌, 난민 문제를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BIZart

글.
김정휘 미술평론가, 관념미학어워드 집행위원장
himanyoman@naver.com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관념미학 어워드 선정기준]

관념미는 작가의 관의 독창성의 수준이 높거나 상식으로부터 진일보할수록 발생하는 지적인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관념미의 발현경로는 조형이론,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창적 조형이론이 존재하거나 관념의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있는 경우(최상)
2.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에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상)
3.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나(특정인의 작품에 대한 연상작용이 강한 경우를 의미함) 2번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중)
4.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며 개성은 있으되 독창적 조형관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하)

1 Daniel arsham 작품
2 백홍 작품
3 Shan hur 작품
4 Lara favaretto 작품

1

제37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Daniel arsham

뉴욕 거주, 쿠퍼 유니언 대학교

Daniel arsham 작가는 여러 개의 벽을 연속적으로 관통시키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7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설치된 여러 개의 벽을 균일한 형태의 크기로 열린 공간을 창출해 내는데 이 형태는 제일 나중에 보게 되는 장벽에 가까워질수록 육안으로 인지되는 사람의 형상으로 환원되어진다.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 아닌 실제 벽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연속적 관통을 보여주는 조형에 대한 접근은 유니크한 조형관념을 다소 도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2

3

제38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백홍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일어일문학과 및 전시경력 다수

백홍 작가는 캔버스와 그림의 참신한 구성을 바탕으로 표현방식에서 고유성을 확보,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8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회화를 담는 일반적인 기능을 방치한 채 캔버스의 드러나지 않는 후면을 전방으로 향하게 고정하여 그림을 캔버스의 하단에 매달리도록 설치하고 있다. 색의 역동적 리듬과 추상성을 내포하는 그림 그리고 캔버스의 새로운 아상블라주의 시도는 회화의 조형 관념에 있어 아직 시도되지 않은 또 하나의 미개척지를 발굴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39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Shan hur

서울 출신, 런던 거주, 서울대학교 BFA 전공, UCL에서 조각 전공

Shan hur 작가는 고고학적인 참신한 모티프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39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갤러리의 정갈한 벽의 한 부분을 파내어 공간을 마련한 뒤 장식적 문양을 드러내는 도자기를 놓아두고 있다. 유물 발굴 현장을 연출하듯 벽을 파내느라 발생한 잔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며 도자기와 그 공간 주변에는 어떠한 조형적 제스처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리얼리즘의 냉담한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4

제40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Lara favaretto

독일 출생

Lara favaretto 작가는 세차 용도로 활용되는 오브제를 도입하여 표현수단에서 고유성을 확보,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0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색채와 거친 질감의 브러시는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 팅겔리 작품의 기계적이고 경직된 움직임과는 다른 서정적 운율을 자아내는 한편 정지된 오브제에서는 섬유로 구성된 정교한 조형을 보는듯한 차분한 안정감이 느껴진다. 오브제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던 지극히 실용적인 사물을 도입하여 그 자체에 내재된 조형미를 음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이 작품에 유니크한 조형관념을 내재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IZart

글.
오민수 작가 홍익대학교 동양화 박사 수료
dat1127@naver.com

조선시대 동물로 투영된 그림 읽기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 왔다. 태초의 인류에게 동물은 식생활을 위한 사냥의 대상이자 자신과 종족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따라서 동물은 필연적으로 중요한 관심거리였기에 인류는 동물의 행동, 습성, 표정 등을 관찰하였고 이를 나타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동물들과 부단히 관계를 가지는 동안에 일부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발달하여 국가가 형성될 때 건국신화나 시조신화 등과 연결되면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초인간적 경지를 열망하는 인간의 끝없는 바람은 동물에 투영되어 그들을 미술의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민족 역시 동물들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그림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우리와 친숙한 동물인 호랑이, 고양이, 개, 소를 다룬 작품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전래동화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상징되어 정의롭고 우호적 이미지로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동물로 사람에게 해를 가져오는 자연재앙을 막아주고, 인간사의 가장 큰 고통인 질병과 전쟁, 굶주림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 고관대작이나 서민들의 집에 여러 형태의 작품유형으로 그려져 걸려 있었다.

호랑이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후기 김홍도(金弘道, 1745~ 미상)의 송하맹호도(竹下猛虎圖)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화면 위쪽에 굵은 소나무 둥치와 가는 가지를 그려 화폭을 가득 채운 호랑이의 모습을 강조하는 한편, 여백을 적절히 메워주는 구도가 절묘하다. 호랑이는 그 털을 세필로 생생하게 묘사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세련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와 뒷다리, 꼬리의 흰선으로부터 몸체의 부피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강하게 그어 강조한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통해 그 위용을 잃지 않도록 그린 것이 특징이다.

작품 속 호랑이의 모습은 전체적으로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인데, 뒷다리나 꼬리는 정면 시점을 취하고 있고, 등뼈는 기형적일 만큼 길게 그려서 옆모습을 만들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상이지만, 감상자로 하여금 화면 속에서 자연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1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 김홍도,강세황, 18세기 후반,견본담채,90.4x43.8cm, 호암미술관 소장

고양이의 묘(貓)자는 한자로 칠십 노인 모(耄)자와 '마오'라는 중국발음이 비슷한 연유로 고양이는 어버이를 섬기는 효의 의미와 더불어, 노부부의 원만한 관계에서 오는 가정의 믿음과 평화,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김홍도(金弘道, 1745~ 미상)의 작품 황묘농접도(**黃貓弄蝶圖**)는 나비와 나비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유기적 움직임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여기에 그려진 나비 또한 장수를 뜻하는 소재로 옛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도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했다.

작품을 살펴보면 고양이와 나비, 꽃과 풀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색채감이 그림의 따사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잘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고양이와 나비 외에도 꽃이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나비와 꽃은 실제의 모습과 같이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반면, 고양이와 바위, 배경은 적은 필치와 섬세한 농담조절을 통해 표현되었는데, 이는 한 화폭 안에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려 혼잡해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작품을 통해 김홍도는 누군가의 노년의 평안함을 기원했을 것이다.

2 〈황묘농접도〉,김홍도, 종이에 채색, 30.1x46.1cm, 간송 미술관

3 〈흑구도〉,김두량,18세기,지본수묵, 23.1x26.5cm,국립중앙박물관

세 번째로 볼 동물은 인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이다. 개는 충직함과 다정함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일상생활 문화에서 인간의 주위를 구성하는 풍경(風景)처럼 존재해왔다. 개의 발달된 후각과 청각으로 작은 미동이나 미세한 냄새도 놓치지 않는 능력 때문에 잡귀와 액운을 물리쳐 집안의 행운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띤 견도(犬圖)가 많이 제작되었다.

김두량(金斗樑, 1696~1763)의 흑구도(黑,拘圖)를 보면 한가로이 언덕에 누워 뒷발질을 하는 개를 표현한 것으로 고목나무 가지나 풀밭의 배경은 습윤한 담묵을 바탕으로 거칠고 소박하게 표현한 반면, 개의 동작은 세필의 반복으로 털의 흐름을 살리면서도 능숙한 농담구사로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털 뿐만이 아니라 입과 눈가에 리듬의 필선을 부여하여 개의 특유의 표정에 입체감과 생동감이 넘친다. 이는 작가의 끊임없는 관찰과 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일 것이다.

농경 사회인 우리 민족에게 소는 농사일을 도왔던 짐승으로 부와 재산, 힘을 상징한다. 새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나 고된 농사일에 대한 위로와 풍년을 가져오게 한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를 위하는 세시풍속과 놀이가 있었던 것처럼 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농사의 주역으로 존중되어 왔다.

윤두서(尹斗緖, 1668~1715)의 작품 '와우(臥牛)'는 화폭 가운데에 한가로이 누워있는 소 두 마리를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소와 바위로만 구성하여 여백이 더욱 강조되어 있고, 거친 갈필과 흑백의 현저한 대비 대신 단정한 필치와 먹의 미묘한 변화에 의한 외형의 표현으로 화폭의 잔잔한 분위기를 이끄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잦은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심신이 지친 자신의 감성을 이입함으로써 속세에서 한 발 떨어져 관망하는 유유자적함이나 허전하고 외로운 감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4 〈와우〉,윤두서, 종이에 수묵, 27.9x401.5cm,국립중앙박물관

이들 동물들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림으로 그려져, 잡귀를 쫓거나 집을 지키는 수호의 의미를 담기도 하였고, 장수나 재물 명예를 기원하기도 하면서 민화로도 널리 그려졌다. BIZart

글.
아트편집팀
artbrunch@naver.com

Edouard Manet & Berthe Morisot

에두아르 마네와 베르트 모리조

1 에두아르 마네 〈올랭피아 Olympia〉, 1863, 오르세 미술관

2 에두아르 마네 〈제비꽃 장식을 한 베르트 모리조〉, 1872, 오르세 미술관

〈풀밭 위의 점심〉, 〈올랭피아〉, 〈피리부는 소년〉,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1832.1.23~1883.4.30).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마네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그의 화가 인생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가 화가가 되는 걸 반대했으며 17세에 선원 생활을 하기도 했고, 파리 살롱전에는 수차례 낙선을 거듭한 끝에 1861년에야 겨우 입선을 할 수 있었다. 마네가 화단에 주목을 받은 계기는 1863년 〈풀밭 위의 점심 Le Déjeuner sur l'herbe〉과 1865년 살롱 입선작 〈올랭피아 Olympia〉를 발표한 후다.

이 두 작품에 대해선 거센 비판이 쏟아졌으나 피사로, 모네, 시슬레와 같은 젊은 작가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인상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마네는 검은색을 기피하며 빛의 움직임을 표현해내는 다른 인상파 화가와 달리 검은색을 대담하게 캔버스에 사용해 오히려 밝은 색면의 강렬한 느낌을 표현했다. 젊은 작가들이 환호한 이유다.

그녀의 뮤즈였던 베르트 모리조(Berthe Marie Pauline Morisot, 1841.1.14~1895.3.2)는 프랑스화가협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인상파 화가다. 마네가 파리 살롱전에 수차례 낙선을 했던 것과는 반대로 모리조는 수차례 입선을 하며 당시에는 드물게 여성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미술사에서 모리조는 마네의 후광에 가려져 있지만 오히려 1874년부터 모네, 시슬레, 르누아르 등과 함께 19세기 인상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기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작가다. 오르세 미술관에 〈요람〉 등의 작품이 소장돼 있는 것만 봐도 화가로서 이룬 그녀의 예술적 성과가 미술사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19세기 말 유럽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시기였고, 미술계에서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며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해 근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던 시기였다. 또 당시 막 태동한 부르주아 사회의 문화적 관습상 여성이 화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화가의 길을 선택한 모리조는 총명한 눈빛과 관능적인 외모로 당대 인상파 화가들의 뮤즈로 떠올랐다. 그 많은 추종자들 중에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바로 마네. 마네의 당당한 화풍에 이끌린 그녀는 그의 제자가 된다.

마네가 모리조를 그린 대표작 〈베르트 모리조의 초상〉을 보고 시인 폴 발레리는 "이 작품은 마네 예술의 정점이다. 마네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 이 작품보다 위대한 작품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팡탱 라투르의 소개로 살롱 드 파리에서 처음 만난다. 사람들이 마네가 발표한 작품을 비난할 때다. 그녀는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마네의 화풍에 매력을 느끼고 그를 옹호한다. 마네 또한 수십 점에 달하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며 마음을 드러낸다. 모리조가 영감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같은 모델을 중복해서 쓰지 않는 마네가 오직 모리조만 캔버스에 담았다는 것이 사랑의 증표다. 하지만 둘은 결혼에까지 이르진 못한다. 마네에겐 작품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마음이 넓은 아내가 있었다. 결국 모리조는 마네의 동생인 외젠 마네와 결혼해 마네를 곁에서나마 지켜보는 걸 선택한다.

모리조는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마네의 사후 전시회를 준비했고, 경매에서 유찰된 작품을 사비로 매입하기도 했으며 프랑스 정부에서 마네의 〈올랭피아〉 작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하는 등 예술가로서 마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인생 전부를 바쳤다. 둘의 사랑이야기는 영화 〈마네의 제비꽃 여인:베르트 모리조〉에 아름답게 표현돼 있다. 원제는 베르트 모리조. BIZart